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 [0] 목차

- [01] 고을사 저 꽃이어~ (안민영): 02p
- [02] 피뿔피뿔 우는 소리에~ (오경화): 02p
- [03]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대농부음) (이규보): 03p
- [04] 원가 (신충): 04p
- [05] 진중음 (이순신): 04p
- [06] 만전춘별사 (작자 미상): 05p
- [07] 내 영혼 술에 섞여~ (김삼현): 05p
- [08] 창밖에 가마솔 배우라는 장사~ (작자 미상): 06p
- [09] 월곡답가 (정훈): 7p
- [10]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8p
- [11] 요일월 순진곤은~ (김천택): 8p
- [12] 대장부 공 이루고~ (작자 미상): 9p
- [13]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 9p
- [14]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작자 미상): 10p
- [15]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이정보): 10p
- [16] 면양정가 (송순): 11p
- [17] 사친가 (작자 미상): 12p
- [18] 속사미인곡 (이진유): 13p
- [19] 몽금포 타령 (작자 미상): 19p
- [20] 어부별곡 (이중경): 17p
- [21] 유산가 (작자 미상): 18p
- [22] 백석정별곡 (신교): 19p
- [23] 성패관천운 (김상헌): 20p
- [24] 정치관군동 (최명길): 20p
- [25] 산민 (김창협): 21p
- [26] 함강정가 (작자 미상): p
- [27] 계녀가 (작자 미상): p
- [28] 규원가 (허난설헌): p
- [29] 목동가 (임유후): p
- [30] 풍계육가 (이정): p
- [31] 만홍 (윤선도): p
- [32] 규수상사곡 (작자 미상): p
- [33] 임 그린 상사몽이~ (작자 미상): p
- [34] 지수성가 (김득연): p
- [35] 안민가 (충담사): p

[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13p]

고을사 저 꽃이여 반(半)만 야윈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춘풍에 향기 좇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 안민영 -

[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13p]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 글을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때마침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오경화 -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13p]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帶雨鋤禾伏畝中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만      形容醜黑豈人容  
왕손 공자들이 더 이상 알보지 마오      王孫公子休輕侮  
그대들의 부귀 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富貴豪奢出自農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新穀靑猶在畝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縣胥官吏已徵租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들이거늘      力耕富國關吾輩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何苦相侵剝及膚

- 이규보 -

[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46p]

질(質) 좋은 것이	物叱好支栢史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너를 중(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汝於多支行齊教因隱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	仰頓隱面矣改衣賜平隱冬矣也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곶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兒史沙叱望阿乃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處地)여.	世理都 之叱逸鳥隱第也
	(後句亡)
	- 신중, 「원가」 -

[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46p]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水國秋風夜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愴然獨坐危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太平復何日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大亂屬茲時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業是千人詆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名猶四海知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邊憂如可定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읊으리	應賦去來辭
	- 이순신, 「진중음」 -

\* 귀거래사: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드러냄.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48p]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둔 오늘 밤 더디 새오리라 더디 새오리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입을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러 오느냐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 \* 버기더시니: 우기시던 이가. 또는 어기신 이가.

[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48p]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망정  
 날 잊고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 김삼현 -

[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48p]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구명도 때우는가  
장사의 대답하는 말이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되  
위엄으로 못 막고 제갈량의 천하 경영하는 재주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명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대 긴 이별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록 051p]

옛 사람 이제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그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내 양자 하 험하니 비누 성적 아니 하네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제2수>

거기서 유신하면 나 혼자 무신할까  
백년 전의란 둘이 다 민사이다  
세상운우 인정이야 배울 줄 있으랴

<제3수>

청승으로 울을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홍중에 진님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오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6수>

피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불 성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여기서 그리는 뜻을 저기서 아니 모르는가  
무던히 고운 님 덧없이 여의울 듯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제8수>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냇이 가리런가  
좃을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들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제10수>

- 정훈, 「월곡답가」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53p]

두류선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

- 조식 -

\* 산영: 산의 그림자.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53p]

요(堯)일월 순(舜)진곤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랐는고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 김천택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3p]

대장부 공 이루고 불러난 뒤에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문고 새 줄 엮어 무릎에 얹고 남  
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 \*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또는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또는 태평한 세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5p]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뒤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

- \*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5p]

연(蓮)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테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들듯 하더라

- 작자 미상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5p]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칠푼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칠푼이 남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  
 칭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엮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  
 도 빈틈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晝夜長常) 뒤  
 틀어져 감겨 있어

동(冬) 선달 바람 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라

- 이정보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58p]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펼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었었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었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음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회지 말든지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석양과 석이여 가랑비마저 뿌리네  
 가마를 급히 타고 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거위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견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현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노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다만 한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부르며 타이며 헐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곱혔다가 젓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송순, 「면양정가」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3p]

정월이라 십오 일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이  
 흉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하라  
 신체발부 사대절\*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오 천세 만세 믿었더니  
 봉래 방장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력(人力)으로 얻을쏜가 슬프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재라\*  
 공산낙목 한 줌 흙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일일 사친(事親) 십이시라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니 이월이라 한식일에  
 천추절\*이 적막하다 개자추\*의 님이로다  
 원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에 속일 난다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도다  
 당우삼대 성제들도 승피백운 하셨도다\*  
 여산 송백 무릉 춘초(春草)는 만고영웅 일과처\*라  
 무서산지 퇴일하니\* 이영백의 사정(私情)\*이오  
 태행산 외로운 구름 보니 적인결\*의 생각이라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그달 그름 다 지나고 삼월이라 삼짱날에  
 제비 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한다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며  
 동쪽 언덕 올라 휘파람 불고 청류 이르러 시 짓는다  
 산화(산화)는 붉은 비단이오 세류(細柳)는 푸른 실이로다  
 춘가에 농부들은 신춘(新春)을 만났다고  
 농구(農具)를 둘러메고 처처(處處)에 왕래하며  
 백마금편 소년들은 화류춘풍 흥을 겨워  
 쌍을 지어 노닐 적에 산화 작작(灼灼) 난만개라  
 슬프도다 세월이어  
 애오생지가련(哀吾生之可憐)하니 탄광음지어류(嘆光陰之如流)  
 로다\*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담청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남풍지훈혜(南風之薰兮)하고 해오민지온혜(解吾民之慍兮)로다\*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河圖) 낙서(洛書)\* 나왔단 말인가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요지일월 순지진곤\* 태평성대 이 아닌가  
 만사(萬事) 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하리  
 타기황앵 아이들은 막고지상 우지 마라\*  
 황금갓옷 펼쳐입고 실버들 속 들어갈 때  
 우레같이 소리 질러 겨우 든 잠 깨어 보니  
 장안 많은 집 등을 달아 산호만세\* 하는구나  
 슬프구나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오월이라 단오일에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봉(奇峯)에 맑구나  
 산양 자규\* 우는구나  
 광풍제월\* 넓은 곳에 솔개 날고 물고기 뛰노는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잠을 내 아니라  
 일신이 한가하길로 너와 놀자 찾았노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 아니 너덕한가  
 일촌간장 맺힌 설움 부모 생각뿐이로다  
 옥창(玉窓) 앵두 붉었으니 원정부지이별(怨征夫之離別)\*이오  
 몽중(夢中) 매화 피었으니 음풍진어영욕(吟風塵於榮辱)\*이오  
 남린 복사\* 보리타작 방방곡곡 농부가로다  
 송백양류 진진 나무에 놀다랴게 그네 매고  
 녹의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하는구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단오절을 모르시나

- 작자 미상, 「사친가」 -

- \* 신체발부 사대절: 신체발부는 몸과 머리털과 피부라는 뜻으로 몸 전체를 이르고, 사대절은 '사지' 즉 두 팔과 두 다리를 말함.
- \* 수욕정이~친부재라: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나 부모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도다.'라는 뜻.
- \* 천추절: 임금의 탄신일을 경축하던 국경일.
- \* 개자추: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의 충신. 한식을 두고 개자추가 죽은 날이라 이름.
- \* 당우삼대~하셨도다: 요순과 하은주 삼대 훌륭한 임금들도 흰 구름 타고 오르셨도다.
- \* 일과처: 한 번 지나간 곳.
- \* 무서산지 퇴일하니: 서산으로 해가 넘어감을 쓸쓸히 여기니.
- \* 이영백의 사정: 이영백의 사사로운 정. 이영백은 중국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이 높았음.
- \* 적인결: 중국 당나라의 명신. 뛰어난 행정력과 공평정대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유지함.
- \* 애오생지~여류로다: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임.
- \* 담청절: 삼짱날의 별칭. 들에 나가 피랴게 난 풀을 밟는 풍습이 있음.
- \* 남풍지~온혜로다: '남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 우리 백성들의 노여움을 풀어 주도다.'라는 뜻. 순임금이 노래한 남풍시를 묘사한 말임.
- \* 하도 낙서: 하도는 황하에서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쑤다섯 점의 그림을, 낙서는 낙수에서 신귀의 등에 있었다고 하는 마흔다섯 점의 글씨를 이름.
- \* 경성가: 경사(慶事)의 노래. 경성은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길성(吉星)을 뜻함.
- \* 요지일월 순지진곤: 요임금이 다스리던 때의 해와 달이요,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의 하늘과 땅. 태평성대를 이름.
- \* 타기황앵~우지 마라: 차용된 한시 원문은 '피꼬리를 쫓아 버리세요 / 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게 하세요'라는 뜻임.
- \* 산호만세: 임금이 산과 같이 장수하기를 바라며 부르는 만세.
- \* 관등절: 석가모니 탄생일인 음력 4월 초파일. 지붕 위 간두에 식구 수대로 초롱을 달고 관등놀이를 하며 관등연을 배품.
- \* 산양 자규: 산 양지 녀의 소쩍새.
- \* 광풍제월: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과 활짝 갠 날 밤에 뜨는 달.
- \* 원정부지이별: 씨움터에 나가는 지아비와의 이별을 원망함.
- \* 음풍진어영욕: 영광과 욕됨을 노래함.
- \* 남린 복사: 남북의 이웃집들.

[18-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7p]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임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못 여자рода  
 유한(幽閒)한 이내 몸을 선음(善飲)한다 이르로세\*  
 서하(西河)에서 잠시 쉬고 수레 타고 돌아오니  
 봉황성에 다다르니 고국 소식 놀랍구나  
 황혼녘에 옛 약속을 다시 거의 찾았으나  
 모함이 망극하니 임이신들 어이할까  
 저자에 호랑이 있다 의심하게 말 만들고  
 증모는 거짓말에 배틀을 던졌음이라  
 우리 임 날 믿는 것을 세상에 누 비할까  
 비방하는 문서들은 상자 속에 가득 두고  
 함정에서 건져 내어 좋은 땅에 귀양 보내니  
 구연성에서 노숙하고 압록강을 바삐 건너  
 성초에서 내려지고 초교에 몸을 실어  
 청천강 삼일우에 옷이 다 젖었으니  
 별쁜 밤에 빨리 달려 쾌수를 건너올새  
 세상의 기쁜 소식 어디가선 들었구나  
 서울 근처로 압송함은 고금에 첫 일ियो,  
 아들과 조카에게 관직을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가 거둬졌었구나  
 박명한 이 내 몸에 임의 은혜 이려하니  
 여관의 흐릿한 등불에 피눈물이 절로 난다  
 금오리 김택귀를 벽제에서 만나보고  
 선산에 잠깐 들러 통곡하여 이별하고  
 성 서쪽의 옛집의 사당을 하직하니  
 가깝고 먼 친척들과 손잡고 이별할 새  
 함께 하던 옛 친구들은 눈앞에 드물도다  
 가는 길이 험하여 여유가 없으니  
 잠시인들 오래 머물 것이런가  
 관악산 십 리쯤의 선산에서 하루 쉬고  
 천릿길 행장을 급하게 차려갈 새  
 종남산을 바라보니 오색구름 아름답고  
 의릉을 바라보니 술 잣나무 푸르구나  
 외로운 신하 원통한 눈물 한강에 가득 뿌려  
 임 향한 한조각 마음 참고 참아 떠나가니  
 내 마음 이려할 제 임인신들 잇을 손가  
 호남길 가려 잡아 노령에 올라 쉬어  
 북쪽을 돌아보고 두세 번 탄식하니  
 뜰구름이 하늘 막아 서울 땅을 못 보겠다  
 금성산 바라보고 귀양지에 찾아가니  
 남도의 큰 마을 낙토(樂土)를 처음 보네  
 주인 정사군이 마주 나와 반겨하니  
 거처도 과분하고 의식도 염려 없다  
 그물처럼 벗겨진 몸 이곳에서 편히 쉬니  
 갈수록 임의 은혜 곳곳마다 망극하다

재상들은 나를 죽이려 하려는지  
 재앙을 일으키려 티격티격 다투으니  
 큰 형벌이 내려질 듯 아침저녁 위급할새  
 먼 섬으로 유배 보내 가시나무 둘러치고  
 여러 사람 노여움을 막으시니  
 끝내 간곡하심을 오늘 더욱 알겠노라  
 사방으로 힘을 쏟은 신하된 자 직분이라  
 봉사하는 작은 수고 말할 것이 전혀 없다  
 안팎으로 베푼 은혜 천자보다 빛나시니  
 죄가 도리어 영화 되니 이 더욱 다행이라  
 고운 얼굴 없는 나요, 재주도 없는 나를  
 무엇을 취하시며 무엇을 중히 여겨  
 말마다 너그럽고, 일마다 보호하셔  
 불품없는 이 한 몸 다칠까 염려하시니  
 엇그제 만난 임이 마음은 오래된 듯  
 임의 뜻 나 모르고 내 뜻 임 모르며  
 무슨 일 이토록 잊히지 않음이 간곡하고  
 백년을 해로한들 이보다 더하겠나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선음한다 이르로세 :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이르는구나. 굴원의 「이 소」에서 비롯한 표현으로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함을 뜻함.

[18-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7p]

임의 은혜 이럴수록 미워함이 더 심하여  
 많고 많은 해도(海島) 중에 가장 먼 곳 골라내어  
 한평생 고통스런 추자도(楸子島)를 처음 여니  
 가족도 두려워하는데 남이야 이를 손가  
 행장을 다 차리고 금부도사 기다릴새  
 어찌하여 우리 아우 금릉에 귀양하니  
 가문 운이 짝 막히고 가문 화도 칩첩하다  
 월남촌 가을밤에 다시 만나자 이별하며  
 타향에서 배개를 마주하고 누웠으니  
 이 또한 임의 은혜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게 됨은  
 심한 천둥과 다를 손가  
 이진 항구에서 배와 샷대 정돈하여  
 동풍이 건듯 불 때 쌍돛을 높이 다니  
 푸른 파도 아득하며 물 밖은 하늘이네  
 외로운 섬 가리키니 겨우 바둑돌이라  
 바야흐로 깊은 밤에 광풍이 하늘에 닿아  
 바다에서 키를 잃고 호흡이 위태할새  
 선장은 속수무책 배 안에서 실색하니  
 아득한 이내 몸이 죽고 산들 관계하랴  
 다시 살게 하신 임의 은혜인데  
 중간에서 헛되이 돌아가랴  
 책망을 달게 받으려던 모든 소원  
 오늘날 이루려고  
 경사를 암송하고 옛사람을 생각하니  
 부강에서 살았던 정숙자는  
 정성과 공경으로 깨달아서 힘을 얻고  
 청회의 장자방은 충신으로 힘입었으니  
 평생을 점검하니 이 공부 남지 않았네  
 채석에서 달을 잡던 이적선과 함께 놀 듯  
 상수에서 투신하던 굴삼여를 거의 볼 듯  
 배 창문에 의지하여 옷깃을 바로 하고  
 천명을 기다릴새  
 한 조각 나무 얻어 연장으로 고쳤더니  
 위험이 편안해지니 잠시 사이로다  
 죽고 삶이 명에 있고 화복(禍福)은 하늘에 있어  
 오늘날 살아남은 우리 임이 도우신가  
 동쪽이 밝아오매 소리하고 돛을 내려  
 석기에 배를 매고 섬 가운데 들어가니  
 마을이 쓸쓸하니 수십 호 여가로다  
 비바람 무릅쓰고 초라한 집 찾아드니  
 지붕은 다 날리고 대창에 창호지 없고  
 평상은 모두 젖어 마른 데 전혀 없다  
 한 말 크기 좁은 방에 이와 벼룩 많을시고  
 팔 척의 큰 키가 굵어 들고 굵어 나며  
 다리를 세워 누워 긴 밤을 새우나니  
 배 안에서 젖은 의복 어느 불에 말리오며

일행이 굶주린들 무엇으로 구할 손가  
 행탁(行橐)을 털어내니 쌀 몇 말뿐이로다  
 흰 죽을 쑤어내어 둘러앉아 요기하고  
 복물(卜物)도 도착하기 밤낮으로 바라더니  
 남은 액이 다하지 않아 바다에서 실패하니  
 죽을 고비 만 번 넘겨 살아남아 다행하나  
 살 방법에 대책 없으니 어이하여 지행하고  
 열 길이나 가지 울타리 사면에 둘러치고  
 북쪽에 구멍 두어 물길을 겨우 내니  
 아득히 높고 먼 하늘 우물에서 바라보듯  
 밤낮으로 들리나니 바닷물결 급한 바람  
 아침저녁 일어나니 독한 안개 거친 비라  
 살 곳을 정하지 못해 두 조각을 이별할새  
 장부의 한 조각 간장을 태우나니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을 금할 소냐  
 남관에서 손자와 이별하던  
 한유의 모습이요,  
 월강에서 아우를 보내던  
 유종원의 회포로다  
 암송관이 이별하며 임 계신 데 돌아가니  
 염려되던 충성심이 다시금 새로워라  
 가을이 점점 깊고 객의 회포 쓸쓸한데  
 송옥의 비추부를 초성(草聲)으로 높이 읊고  
 유씨 박씨 두 손님을 근심으로 상대하여  
 무릎이나 겨우 움직일 몇 칸의 작은 집을  
 처음으로 집 짓고자 다스릴 새  
 섬 안의 모든 백성 진심으로 일을 끝내니  
 흙 이기고 기와 나르던 창화현(昌化縣)의 풍속이라  
 격식은 못 갖춰어도 거처는 깨끗하다  
 몸을 맘대로 움직임이 이제야 편안하다  
 감군은(感君恩) 세 글자를 벽 위에 크게 쓰고  
 망미현(望美軒) 글자가 있는 마루를 섬 안에서 뉘 모르리  
 종일 문을 닫아걸고 주자학 책 펼쳐보니  
 이치가 무궁함을 늙게야 깨달았다  
 새와 까치 본 데 없고 까마귀 술개 지저귀며  
 흉하게 생긴 얼굴 어부들을 만나보니  
 들사슴의 성정이요, 오랑캐 말소리로다  
 상대하기 답답하니 무슨 말로 수작할꼬

- 이진유, 「속사미인곡」 -

[18-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7p]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양식도 꺾질(乏絶)커늘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도 못 먹거든 어육(魚肉)이야 바랄쏘냐  
 섬 안 수십 리에 일년초가 희한하다  
 조석(朝夕) 밤도 못 익힐 제 방이 덥기 생각할까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쭈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읊렸으니  
 어와 이 물골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춘풍 도리화(春風桃李花)야 못 본다고 상관하라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낙모가절(落帽佳節)\*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굴원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떼와 모기떼는 백 가지로 쏘아 제치고  
 뱀과 전갈, 지네는 네 벽에 마구 기어다니다니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 없고 백악(百惡)만 구비(具備)하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오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누가 있으며  
 반계(盤溪)에 있는 내 집 비어 있는들 누가 지킬꼬  
 하사받은 천 권의 책 고각(高閣)에 묵혀 있으니  
 좀벌레 다 먹은들 그 누구라서 포쇄\*하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 버린들 누가 금할꼬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이 기산 다스릴 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사일세  
 일월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굶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長門賦)\*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늘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밟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셔  
 일당우불(一堂吁佛)에 수답(酬答)이 여향(如響)하니\*  
 앞에서 귀신을 물든 가태부(賈太傅) 이러한가\*

어촌의 먼 닭 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宛然)하고  
 우리 임 어로향(御爐香)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 염장: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
- \* 솥국: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
- \* 낙모가절: 중국 진나라 때 인물인 맹가가 중앙절(음력 9월 9일)에 국화주에 취해 모자가 떨어진 것도 몰랐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이를 조롱하는 글을 써 보이니 그 글에 화답하는 멋진 글을 지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
- \* 굴원이~먹을꼬: 영광과 욕됨을 노래함.
- \* 포쇄: 찢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쏘고 별에 바림.
- \* 백두음: 중국 한 무제 때 문인인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 하자 그의 아내 탁문군이 원망의 마음을 담아 써 보낸 시로, 이 시를 읽은 사마상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첩을 들이지 않았다고 함.
- \* 장문부: 중국 한 무제의 비인 진 황후가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짓게 해 황제의 총애를 회복했다고 함.
- \* 일당우불에~여향하니: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임.
- \* 앞에서~이러한가: 모함을 받아 변방에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효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71p]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임 만나 보겠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고요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소래\*

(중략)

바다에 흰 돛은 쌍쌍이 조어나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눈물만 겨워라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루미 앉았네

장산곶 마루에 새 소식 들리니  
원포귀범에 정든 임 오셨네

무정한 우리 임 말없이 가더니  
봉죽을 받고서\* 돌아를 오셨네

임 실러 갈 적엔 반돛을 달고요  
임 신고 올 적엔 온 돛을 단다네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 온다네

가는 임 야속타 속태우지 말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

\* 바람새: 바람이 부는 형세.

\*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소래: 몽금포, 개암포 들렀다 가세요.

\* 봉죽을 받고서: 고기를 가득 잡아 만선이 된 것을 황해도에서는 '봉죽을 받았다'라고 표현함. '봉죽'은 배에 다는 대나무 깃대를 뜻함.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2p]

아이고 애들올샤 아이고 설올세고  
 망극(罔極)한 천지(天地)에 내 혼자 사라 이서  
 네 있던 어채(魚菜)를 보니 내 안 둘 디 업세라

<제1수>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를 일삼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물외의 풍월강산이 내 분인가 하노라

<제2수>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  
 옹거나 외거나 나도 내 일 모르노라  
 세상이 시비를 마라 어부 무삼 그르리

<제3수>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할 이 없을러냐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빌 데 없어라

<제4수>

내 나히 만커니 쓰나 머리도 세거니 쓰나  
 소년시(少年時) 먹음은 초성 아니 늘건노라  
 일일에 아희(兒戲)를 하니 잊는 줄을 모른다

<제5수>

청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산고수장(山高水長)하니 그 아니 좋을쏘냐  
 산수 간 일한인(一閭人) 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

<제5수>

- 이중경, 「어부별곡」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4p]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매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포자(單瓢子)로 천리 강산 들어가니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  
 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 만발 점점홍(도桃花滿  
 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 당춘절(黃山  
 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거지 중천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 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증암절벽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르르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던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箕山) 영수(潁水)가 예  
 아니냐

- 작자 미상, 「유산가」 -

- \* 어주축수 애산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의 한 구절로,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라는 뜻임.
- \* 양류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곡리 당춘절: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른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남.
- \* 연명오류: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인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쓴 진(晉)나라의 문인 도연명이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을 가리킴.
- \* 소부 허유: 고대 중국 요임금 때 기산 영수에서 은거하던 이들의 이름. 허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주겠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였음.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75p]

남자로 세상에 나서 속절없이 늙어가니  
 할 일이 전혀 없어 명승지를 찾아보니  
 백석탄 돌아드는 풍경이 그지없다  
 속리산 문장대는 눈앞에 벌려 있고  
 십 리의 넓은 물을 좌우로 둘렀으니  
 지세도 좋거니와 경치도 기이하다  
 백옥 같은 바위 위의 푸른 이끼 닭아 내고  
 몇 간의 고운 집을 물 가까이 지어내니  
 동정호 약양루인들 이보다 더하겠나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축이 되어 있고  
 석봉이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오  
 화평에 피리 소리 소 먹이는 아이로다  
 지담\*에 뗏는 배는 일엽(一葉)이 가볍고  
 물결에 비친 다리 반공(半空)에 무지개로다  
 백암\*에 섰는 단풍 금병(金瓶)을 둘러 있고  
 취벽의 늙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萬壑)이 한 빛일 때  
 청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의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일홍을 못 이기어 뉘대를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은린옥척은 경면(鏡面)에 뛰노는고  
 뉘릿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 두고  
 비늘을 굽어내어 넓은 돌에 회 쳐 놓고  
 연잎에 빛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며 누웠으니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  
 홍진의 벗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  
 일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삼척오동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 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맑은 노래 불러내며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뗏는 소리 신선이 노니는 듯  
 삼신산이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 기슭에 피어 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朝暮)에 제비하다\*  
 소쇄\*한 정자 속의 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煙霞)의 병이 들어 백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世事)도 나 몰라라  
 어느덧 잠들었다 꿈 깨어 일어나서  
 술바람에 모자 벗고 이리저리 배회하니  
 농부들과 어부들은 옛 약속을 잊지 않고  
 전나귀에 술을 싣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한 잔 먹은 후에 또 한 잔 부어내어  
 꽃 꺾어 썸을 하며 크게 취해 노니오니  
 이 밖의 세상 영욕은 뜬구름으로 여기노라

- 신교, 「백석정별곡」 -

- \* 사탄: 모래사장가의 여울. 또는 모래가 깔린 여울.
- \* 지담: 향기로운 풀이 피어 있는 맑은 연못.
- \* 백암: 흰 바위.
- \* 낙하: 낮게 드리운 저녁노을.
- \* 제비하다: 나란히 날다.
- \* 소쇄: 맑고 시원한 모양.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8p]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려 있으니	成敗關天運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	須看義與歸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망정	雖然反夙暮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쏘냐	未可倒裳衣
권*은 혹 어진 이도 그르칠 수 있으나	權或賢猶誤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	經應衆莫違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奇言明理士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	造次慎衡機

- 김상헌 -

- \* 권(權): 권도(權道).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행동의 기준을 변통할 수 있다는 입장. '권'은 저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쓴 방편 등을 의미함.
- \* 경(經): 경도(徑道). 도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또는 기준 등을 의미함.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8p]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靜處觀群動
진실로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	眞成爛漫歸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湯水俱是水
털옷도 삼베옷도 옷 아닌 것 없으니	裘褐莫非衣
일이 어찌다가 때를 따라 다름망정	事或歸時別
속마음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	心寧與道違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君能惜斯道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로세	語默各天機

- 최명길 -

- \* 천기(天機): 하늘의 이치, 하늘이 내려 준 성질.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44p]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下馬問人居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婦女出門看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坐客茅屋下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爲我具飯餐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丈夫亦何在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扶犁朝上山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山田苦難耕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日晚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隣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鷄犬依層巒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中林多猛虎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採藿不盈盤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哀此獨何好
척박한 두메산골 산단 말인가	崎嶇山谷間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樂哉彼平土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	欲往畏縣官

- 김창협, 「산민」 -